

[報 文]

古代 西아시아의 服飾에 關한 研究

李 南 姬

漢城大學 衣裳學科

A Study on the costume of ancient Western Asia

Nam Heui Lee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College

Abstract

The costume, considered as a manner of clothing, represents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a country, of an epoch, of a personage; and always it mirrors the vicissitudes of human civilization.

It is interesting to study the costume of ancient Western Asia, its civilization and culture were transmitted to Egypt and Greece.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Loin clothes, tunics, wraps were in Western Asia.
2. Sleeves and Trousers has been the great contribution to costume.
3. The Art of dyeing, weaving, and embroidering were well known.
4. Tassels and Fringes were used in Western Asia.
5. Egypt and Greece were affected by Western Asia.

I. 緒 論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와는 달리 地形이 開放적이기 때문에 여러 外族이 빈번히 侵入해 왔고, 그 結果 政治的인 변천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古代의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와 달라서 王朝가 아니라 一連의 獨立된 國家들이 일어났다.

이들 國家가 처음으로 일어난 땅은 티그리스·유프라테스江 河口的 수메르(Sumer)의 땅인데 Ur나 Lagash 같은 수메르의 都市들은 서기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오 르니 이집트의 통일국가 보다 오랜 것이다.⁽¹⁾

그 後 이 곳엔 아카드인의 王國인古巴빌로니아가 일어나는데 수메르, 바빌로니아의 文化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遺産을 남겼다.⁽²⁾

이집트 文化가 外部의 자극이 적어 新王國이전엔 服飾에 있어 다양함이 보이지 않는데 비해, 메소포타미아는 특수한 환경을 배경으로 他 民族과 접촉융합하여 발전하므로써 多種多樣的인 衣服形態를 낳았다.

이들에 있어서는 染色·織造·刺繡가 굉장히 발달하

여 무척 세련되어 있었다. 금속 공예도 발달하여 金을 織造에 使用할 수 있게 가늘게 만들기도 하였다.

Pliny는 gold thread를 사용하여 織造를 하는 것은 Asia王인 Attalus의 발명이다⁽³⁾ 고 하였다.

西아시아는 생활하기에 좋은 초원지대로서 목축과 농업을 主業으로 삼아 그들의 양식과 衣料를 얻었다.

목축과 織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毛織物은 일찍부터 발달했지만 곧이어 농업의 발달과 수입에 의해 亞麻와 木綿이 더해져서 女子나 노예에 의한 西아시아의 직물생산은 量과 質에 있어 세계적이었다. 이것 위에 그들의 풍요한 예술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그들은 독특한 복식양식을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는 당시의 선진국으로서 이집트를 비롯하여 그리스에 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⁴⁾

本稿에서는 서아시아제국의 특징적인 복식에 對한 고찰과 아울러 이 服飾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route를 통해 이집트와 그리스에 전달이 됐는지를 究明해 보고자 한다.

II. 古代 西 아시아의 服飾

1. 바빌로니아(Babylonia) (3200~1750B.C)

바빌로니아는 수메르(3200~2200B.C),古巴빌로니아王國(2100~1750B.C)으로 되는데, 초기엔 loin cloth를 입었다.

2900~2700B.C의 男子들의 一般的인 服裝은 장단지 정도나 그 아래까지 내려오는 skirt로서 왼쪽 뒤측에서 여며진다.

2459~2289B.C의 Lagash, Ur, Uruk의 男子들은 kaunakes라는 것을 입었는데, 이는 처음엔 거친 wool 다발을 술과 같이 만든 독특한 衣料用的 재료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차츰 하나의 의복으로서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을 통털어 부르게 되었다.⁽⁶⁾ 이는 길고 턱수룩한 tiered된 skirt로서 대개 앞에서 여며지는데 wool다발이 거친 술과 같이 수평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서 아카드王朝시대에는 오른쪽 겨드랑이 밑을 지나 왼쪽어깨에 얹고 가슴을 비스듬히 감고, 밑은 층층으로 여러번 감아 입는 두르는 옷으로 되었다.

kaunakes는 wool다발을 平織의 麻布에 집어넣어 만들기도 하고 wool타래를 hide에 붙여 만들기도 하였다.⁽⁶⁾ kaunakes의 tiers들은 보통 경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때로는 규칙적으로 술장식을 하기도 하였다.⁽⁷⁾ 이것은 허리까지 오는 것, 어깨까지 오는 것, 또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 위만 걸쳐 입는 것 등의 4가지가 있었으며, 그 외에 그들은 양쪽 짧은 면(세로 방향)에 쇠사슬로 장식이 된 shawl을 입었다. 입는 法은 한쪽 끝이 왼쪽어깨에 얹혀지고 shawl이 비스듬히 등과 가슴을 두르고, 오른 팔을 드러낸다. 천히 끝나는 짧은 쪽의 아래 모서리가 왼쪽 앞 팔 위로 늘어지며, 뒷 모서리는 어깨 뒤로 넘겨져 오른쪽 겨드랑이 밑을 지나 왼쪽 어깨로 오게된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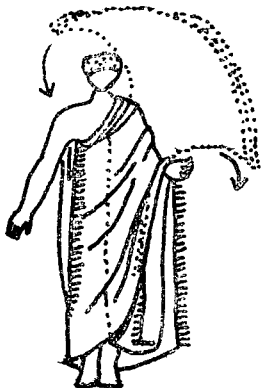


Fig. 1. Sumer의 shawl(男)

일반적으로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어떤 때는 머리를 완전히 편도질한 것도 눈도 편다. 머리쓰개로는 tiara와 mitre가 있는데, mitre는 허리띠를 대신할 수도 있었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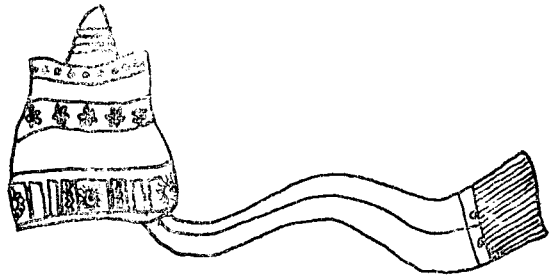


Fig. 2. tiara

초기 女人들의 기본적인 것은 shawl로서 여러 방법으로 주름잡히게 되는데 주름잡힌 큰 면의 한쪽을 중앙에서 붙들어 가슴에 놓는다. 팔 밑을 지난 두 끝은 등에서 서로 교차되어 어깨로 다시 와 앞으로 늘어지게 된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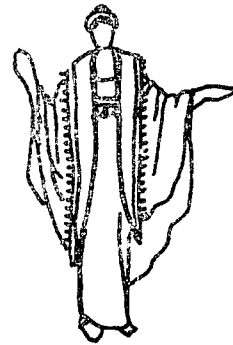


Fig. 3. Sumer의 shawl(女)

부유한 女人들은 커다란 金 pin으로 어깨에서 고정시킨 화려하게 장식된 짧은 tunic을 입고 그 위에 shawl을 입었다.

머리에는 매우 복잡한 형식으로 둘러져 트레이프의 극치를 보여주는 turban, 원통형의 toque, kaunakes를 쓰기도 했고, 색깔이 있는 ribbon에 의해 고정된 풍성한 가발도 있었으며,(Fig. 4) Ur의 무덤에서는 靑金石 환가운데에 ring과 金으로 된 꽃과 꽃잎을 모아놓은 굉장한 것이 발굴되었다.(Fig. 5)

古巴빌로니아王國은 처음엔 수메르와 동일했었으나 2000B.C 경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긴 소매가 달린 tunic과 막힌 신발로 특징지을 수 있다.



Fig. 4. Sumer의 머리장식 Fig. 5. Sumer의 머리장식

2. 아씨리아(Assyria) (1380~612B.C)

이들의 의복은 스타일이 획일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장식에 많은 신경을 써서 직물의 Pattern, 직물의 가장자리 장식과 술 장식, 刺繡와 色彩의 선명함 등이 놀랄만하다. 기본적인 옷은 腰衣, tunic, 그리고 술이 달린 shawl이었다. 모직으로 된 tunic은 짧은 소매도 달리지 않았으나, 王과 高官들의 것은 길고 水玉 로켓, 菱形으로 매우 화려하게 刺繡가 놓여져 있었으며, 끝은 술로 장식되어 있었다. (Fig. 6) 王과 高官들은 shawl



Fig. 6. Assyria의 남자

에 붙은 술의 숫자, 幅, 배치등으로 신분을 나타냈는데 經·緯로 술이 달리고, 기하학적인 무늬와 여러가지 색깔로 짜거나, 혹은 자수를 놓아 환상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로 장식되기도 하였다. B.C9세에 Assour-nazir-abal의 shawl은 간단히 한 모퉁이를 왼쪽 어깨에 올려 놓고, 왼은 오른쪽 팔 아래를 지나 비스듬히 왼쪽 어깨에 걸쳤다. (Fig. 6)

사제는 두 가지의 옷을 입었는데, 첫째는 나선형의 것으로 이에는 삼각형의 술이 달려 있었으며, tunic 위에 입었다. 둘째는 표백한 亞麻로 만든 cloak 또는 apron이다.

사수들은 망포를 벌거벗은 上體에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입고, 기하학적인 것들로 장식된 腰衣를 입었다.

(Fig. 7) 보병들은 끈을 맨 높은 군화 속으로 들어가 는 투박한 천으로 만든 바지를 입었다. (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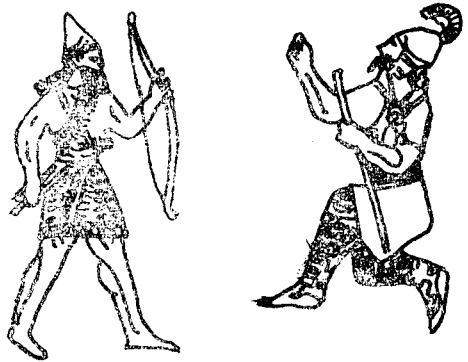


Fig. 7. Assyria의 사수 Fig. 8. Assyria의 보병

머리쓰개는 紡毛로 만든 tiara가 대표적인데, 王이 쓰는 tiara는 전통적으로 소뿔이 장식되어 있었다. 이 tiara는 계급을 나타냈는데 장식을 한 줄(row)과 band를 변화시키므로써 이 목적을 달성했다. 또 술이 달린 mitre도 있었다. 女人들은 좁고 기다란 소매가 달린 tunic위에 술을 입었다.

머리쓰개는 원통형 또는 원추형의 높은 모자로 부분적으로 긴 사포가 쓰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포는 얼굴 앞으로 내려왔던 것 같다.

1200B.C의 Assyria는 法으로써 결혼한 女子는 veil을 쓰게 하였다. (8) 女子들은 히타이트와 페니키아의 머리쓰개를 받아들인 것 같다.

신발은 장식이 붙었거나, 직물로 만들어진 듯하나 보석을 박은 녹색의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었으며 sandal은 아니었다.

3. 페르샤(Persia) (550~330B.C)

페르샤인의 복장을 고찰할 경우 두 개의 커다란 복장의 흐름을 봐 둘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찍부터 문명이 열린 메소포타미아와 서부 산지를 넘어 교통로를 가져 그의 유행의 빛을 받은 메디아인의 복장이며, 다른 하나는 동방 고원지대를 고향으로 하는 페르샤인 교유의 복장이다.

메디아인의 복장은 페르샤의 公服으로 사용됐으며, 그들은 가죽이나 털 대신 絹이나 綿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Luristan시대에 메디아인들은 hip둘레를 두르는 kilt와 장단지까지 내려오는 스커트를 입었으며, 王과 그의 신하들은 발목까지 오게 입었다.

그 후 메디아인들은 kandys를 입었는데 이는 넓은 소매가 있기도 하고, 또는 달리지 않기도 하는 풍성한

옷이다. 이것은 이집트의 kalasiris와 원형은 비슷하지만, 드레이프의 美를 더해 독특한 형식을 갖는 옷이다.

이에 反해 민중의 복장은 페르샤人 高유의 소매가 달린 tunic과 바지였다. 그래서 페르샤人의 복장은 이와 같은 두 개의 대조적인 형식의 조화 위에서 발전하였다.

귀족들은 다양한 색의 천에 線, 별, 동물, 꽃의 motif가 수 놓아져 있고, 끝이 金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Phrygia, Lydia, 등의 귀족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⁹⁾

男子들의 coat는 허리에 꼭 끼며, 길고 꼭 끼는 소매가 제대로 arm hole에 달린 것으로서 처음엔 무릎 길이였으나 후에는 장단지 길이로 되었다.

그리스인들이 anaxarides라 이름을 붙인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가 boots와 같이 입혀졌다.

귀족들은 발등에 끈이 3개 있는 신발과 색이 있는 slipper를 신었다.

tunic의 소매는 장식되고 주름잡힌 한 쪽의 천에 의해 넓혀진다.(Fig. 9) 활동하려면 이 거치장스런 옷은



Fig. 9. Persia의 kandys

허리며 안으로 치켜지며, 소매는 위 아래가 뒤집혀 어깨 위에서 고정된다.

이러한 주름의 arrange에 의한 구성방법은 메소포타미아의 mode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도로서 여기서는 페르샤人들의 original한 美的 감각의 예리함을 엿볼 수 있다.

머리쓰개로는 귀와 뺨을 덮으며, 턱 밑으로 교차되는 기다란 천이 두 개의 띠로 연결되는 부드러운 felt 모자(Fig. 10)와 원통형 또는 토치카형의 kulah와 꼭대기가 톱니 모양의 kyrbasia, 동시에 hood형의 것도 보인다.

女人들은 품이 넉넉한 tunic을 입고 그 위에 진주로 장식한 것 같은 허리띠를 매며, 소매는 손목에서 죄어

지며 머리에는 사포를 썼는데, 이는 양 끝에서 묶여져 띠로 고정되어 있다.(Fig. 11)



Fig. 10 Persia의 남자 Fig. 11. Persia의 여자

또 그들은 그리이스의 히마티온과 같은 드레이퍼리를 함께 입고 있었는데, 주름의 취급은 그리이스에 비해 떨어지지만 직물의 아름다움, 디자인의 훌륭함은 견줄 수가 없다.

4. 히타이트(Hittite) (2000~1200B.C)

B.C 14C에 히타이트王國은 소아시아의 흑해연안에서 아씨리아와 팔레스타인 변경까지 넓혀졌다. 지리적 위치는 이 王國으로 하여금 東洋과 西洋을 연결하는 중계자가 되게 하였다.

남성 복장은 가장자리 장식이 풍부한 허리 옷인 腰衣와 길거나 짧은 tunic으로 된다. 腰衣하나만 입을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tunic도 입었으며, 그 위에 허리 주위에 커다란 shawl을 걸쳐기도 하였다. 이는 왼쪽 어깨 위로 올려져 가슴 위에서 오른쪽으로 늘어진다. 이 shawl은 아씨리아의 관례처럼 왼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훨씬 좁은 이 shawl을 튼튼한 브로치에 의해 고정된다.(Fig. 12)



Fig. 12. Hittite의 남자

옷 전체에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한 자수가 놓여졌으며, shawl의 가장자리에 바퀴의 테두리 같은 장식이 되

어 있다.

곱슬 곱슬한 머리털을 간단한 band로 묶거나 이랑진 bonnet, 또는 자수나 보석으로 된 band로 장식된 冠으로 가리운다.

신발은 色 있는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앞쪽이 구부러져 올라가 있다.

군사복장으로서 2000B.C頃の 투구는 원추형이며, 귀를 보호하는 2개의 조각과 등으로 늘어지는 기로 장식된다.

1000B.C頃の 투구는 장식용 털이 달린 꼭지와 뺨 보호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는 그리이스의 투구 모습을 나타낸다.(Fig. 13)



Fig. 13. Hittite의 군인

女人들은 짧은 소매의 tunic을 입고, 몸의 후면만 덮는 한 조각의 천이 매우 넓은 허리띠 밑에 끼여져 있으며, 투명한 사포가 원통형의 높다란 bonnet위나 혹은 원추형의 뺨 모자 위에 놓여졌다. 이 tunic이 B.C 8C까지 존속했다.

브로치를 상의에 꿰었는데, 이는 上衣에 주름을 지게 하며, 아마 shawl을 tunic 위에 걸쳤을 때 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했을 것이다.(Fig. 14)

2000 B.C頃에는 손목 부분만 꼭 끼이는 넓은 소매가



Fig. 14. Hittite의 여자

달린 풍성하고 끌리는 tunic을 입기도 하였다.(Fig. 15) shawl은 허리 둘레를 먼저 두른 다음 인도의 샤리식으로 어깨 위에 걸쳐진다.



Fig. 15. Hittite의 남자

5. 시리아(Syria)와 가나안(Canaan) (B.C300~ B.C6C)

3000 B.C頃엔 술이 달린 腰衣를 입었다.

2000 B.C頃の tunic은 일반적으로 짧고 팔의 대부분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shawl은 이 tunic 위에 아주 간단하게 두르거나 잘게 주름잡았다.

Rames시대(1315 B.C)에는 두 가지 복장을 볼 수 있는데, 그 조립은 비슷하지만 색깔의 분할과 장식은 매우 다르다.

하나는 흰색이며 shawl의 가장자리와 tunic의 술기를 따라 赤色, 青色의 불연속의 술로 건어 올려졌고, 두번째 옷은 靑과 赤이 엇갈린 색색의 층으로 나뉘어지며, 장미꽃 장식과 작은 꽃이 촘촘히 놓여진 천의 사용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이 얼룩덜룩한 옷은 페니키아인을 특징지었다.(Fig. 16)



Fig. 16. Phoenicia의 남자

시리아의 베드윈족들은 머리 주위에 감은 형질따로 된 머리쓰개를 하였다.

1000 B.C의 시리아와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아래와 같은 형태의 옷을 입었다.

첫째는 완전히 아찌리아의 영향을 받은 복장을 했으며, 신발은 끝이 올라가고 bonnet는 히타이트의 머리쓰개와 비슷하였다.

둘째는 재단해서 꿰맨 것으로 술 달린 기다란 tunic과 목직한 보석이 허리 높이에서 옷의 양쪽 가장자리를 이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caftan으로 구성된다. (Fig.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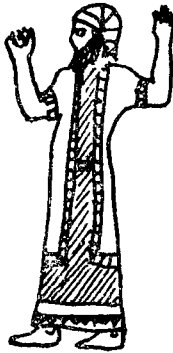


Fig. 17. Syria와 Canaan의 남자

1000 B.C頃の 페니키아인들이 택했던 섬세하고 긴 옷은 페르샤의 튜닉과 이집트의 kalasiris를 동시에 연상케 한다.

좁은 허리따로 옷의 넉넉한 주름을 앞에서 고정시킨다.

원통형의 머리쓰개는 앞쪽이 낮으며 이집트의 赤冠을 연상시킨다. (Fig. 18)

女人들은 3000~2000 B.C頃에는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크레타의 것과 유사한 스커트를 입었다.

1000 B.C頃の 복장에서는 기다란 tunic과 히타이트



Fig. 18. Phoenicia의 남자

사포를 다시 볼 수 있는데 이 사포는 이따금 높은 머리쓰개 위에 올려 놓는 대신 머리 털 위에 직접 쓰여 지기도 하였다. 머리따로 묶인 일종의 mitre인 sarmat 그리고 귀중한 금속 원반의 rolles는 머리 양쪽 앞으로 나와 가로 놓인 띠로 고정시켰으며, 한편 늘어 뜨린 보석과 금줄이 달린 2개의 보석들은 평행추 역할을 하여 sarmat를 고정시킨다. (Fig. 19)



Fig. 19. Syria와 Canaan의 머리쓰개

6. 프리지아(Phrygia) (B.C7~6C)

그들은 Tunic을 2벌 입었다. 속에 입은 것은 겉의 것에 비해 좀 더 길었지만 무릎 위였고, 긴 소매가 달렸으며, 겉에 입은 것은 길이가 hip까지 오는 것이었다. 겉에 입은 것에는 소매가 없었으며, girdle을 하지 않고 헐렁하게 입었다. 때때로 겉에 입은 tunic은 hip까지 내려오며, 무릎까지 내려오기도 하였다. (10) (Fig. 20)



Fig. 20. Phrygia의 여자

女人들은 long straight tunic을 입었는데 소매가 손목 또는 팔꿈치까지 내려왔다.

그들이 쓴 작은 모자는 phrygian bonnet라 하여 유명함대 이의 특징은 위 끝이 앞쪽으로 휘어졌으며 long flap이 어깨까지 내려 온 것이다.

이집트에 미친 영향

메소포타미아 지방과는 달리 이집트는 지형이 배쇄적이어서 역사가 무척 단조로웠으며, 文化가 外部의 자극이 적어 일찍 停滯해 버렸다. (11)

古代오리엔트인의 옷의 종류라면 腰衣인 loin, cloth, tunic, wrap의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지방에는 3가지가 다 있었음에 반해 이집트에 있어서는 1750B.C. 힉소스(Hyksos)의 침입전인 古王國, 中王國때는 loin cloth한 종류 뿐이었다.

1750 B.C 이후 이집트왕조, 히타이트, 아씨리아 등이 分立하여 맹렬한 민족 투쟁을 전개하여, 이로 말미암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집트의 新王國인 XVIII 王朝부터는 kalasiris라는 tunic과 haik royal이라는 wrap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입혀졌으며, 시리아 적조인들이 만든 다채로운 색조의 織造와 刺繡의 pattern을 볼 수가 있다. (12)

刺繡에 쓰는 gold thread도 서아시아에서 전래된 것이다. (13)

kalasiris에는 페르샤의 영향으로 소매가 달린 것도 있다.

haik royal은 아라비아인들이 사용한 haik와 비슷하기 때문에 XVIII, XIX王朝의 왕들이 사용했던 drapery를 Beaulieu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14)

신발에 있어서도 동방의 영향으로 앞부분이 뾰족하게 올라간 쥘이 신겨지게 되었다. (15)

그리스에 미친 영향

그리스는 지중해에 있어서의 교통과 상업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과 접촉을 하며 새로운 그리스 文化를 창조하였다. (16)

B.C 12C 도리아의 침입으로 자극 받은 이 주민들은 이오니아 식민지를 세력있는 집단으로 만들었는데, 이 이오니아 사람들은 아씨리아사람들과 판테스타인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

이오니아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른 Asia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pleating linen입는 법을 전했다. 이것이 Ionic chiton이다. (17)

길고 좁은 소매를 가진 chiton도 동방에서 유래한 것이다.

생활방식과 기후는 인종적인 요인보다 의복의 개혁

에 근본적인 요인이 될 때가 있다. 이는 유럽과 Asia Minor의 산이나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의상이 유사한 것은 보아도 알 수 있다.

두꺼운 cloak, hood, 다리를 linen이나 다른 천으로 십자형의 band로 묶는 breech, 기하학적인 형태로 된 장식적인 braid등이 아시아에서 전해진 것이다. (18)

부유한 사람들은 Asia Minor의 고급직물을 사용했다. (19)

linen은 Ionia 사람들에 의해 그리이스로 들어왔다. (20)

Phrygian bonnet도 빼 놓을 수가 없다. (21,22)

또한 동방의 영향으로 염색술과 장식이 풍부해졌다. (23)

그리스는 이와 같이 새롭고 풍부한 물건들을 받아들였는데, 이것들은 지중해에서 Tigris에 이르는 caravan route를 통해 전해진 것이다.

結 論

서아시아는 지형이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外部의 이질적인 요소와 융합하여 발전하였다.

같은 문명의 발상지인 Egypt 보다는 일찍 문화가 발달하여 당시의 선진국가로서 주위의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古人에 있어서 costume의 종류는 몇 안 되지만 드레이프를 arrange하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Heuzey에 의하면 그리이스에 있어 엄청난 수의 형태의 다양함은 그리이스인의 예술적 상상력에 오로지 기인한다고 하였지만 (24) 이는 서아시아나 이집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古人의 의복이라 하면 크게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loin-cloth, tunic, wrap이 그것인데, 서아시아에는 이 3가지가 공존했으며, 바지와 소매는 복식세계의 큰 공헌이다.

이외에도 이들의 특색은 자수, 술장식 염색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집트에는 tunic (kalasiris)과 wrap (haik royal)와 여러 가지 장식법이 전달되어 이집트의 복식이 훨씬 다양해졌다.

그리스에도 Ionic chiton, Phrygian bonnet 염색술과 장식법들이 전달되어 그리스 복식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引用文獻

- 1) 양 병우 外 譯, 世界文化史(上) 을유문화사, 49.
- 2) 양 병우 外 譯, *ibid.*
- 3) Lester and Kerr, *Historic Costume*, Chas, A. Bennett Co., 33.
- 4) 조 의설, 大世界史, 현암사, 140.
- 5) 村上憲司, 西洋服裝史, 創元社, 19.
- 6) 元井能, 西洋被服文化史, 光生館, 16.
- 7)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Publishers, 40.
- 8) Laver, *The Concis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Charles Scribner's Sons, 15.
- 9)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Crown Publishers Inc. 5.
- 10) Lester and Kerr, *ibid.* 35.
- 11) 조 좌호, 世界文化史, 박영사, 32. (1975).
- 12) Milla Davenport, *ibid.* 17.
- 13) R.T. Wileox, *The Mode in Costume*, Charles Scribner's Sons. 13.
- 14) 舟野郁, 西洋服飾發達史(古代), 光生館, 24.
- 15) Blanche Payne, *ibid.* 25.
- 16) Pistolese & Horsting, *History of Fashions*. John Wiley & Sons, Inc. 51.
- 17) F.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and Hudson, 55.
- 18) F. Boucher, *ibid.* 104.
- 19) Carl Köhler, *A History of Costume*, Dover Publications, Inc. 106.
- 20) F. Boucher, *ibid.* 106.
- 21) F. Boucher, *ibid.* 104.
- 22) R.T. Wilcox, *ibid.* 13.
- 23) F. Boucher, *ibid.* 110.
- 24) F. Boucher, *ibid.* 110.
- 24) F. Boucher, *ibid.* 103.